

집중진단 민선 9기 위성곤 도정 주요공약 검증 (2) 1조원 제주미래성장펀드

도민·정부 자금 제주 혁신분야에 투자

위, 정부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활용해 자금 조성도 “구체적 자금 조성 방식은 태스크포스 꾸려 논의”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약 중에는 1조원 규모의 제주미래성장펀드 조성이 있다.

위 지사는 1조원이 모이면 관광을 포함한 1차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AX(인공 지능 전환) 사업 혁신 지원에 5000억원 ▷AI분야에 3000억원 ▷청년창업도시 조성 및 청년 인스금용 등에 1000억원 ▷사회혁신, 소셜 임팩트 분야에 1000억원 등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관건은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끌어모으느냐다.

위 지사는 주요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정책형 투자 펀드인 국민성장펀드를 지목했다. 정부가 5년간 조성하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중 지역에 투입하는 재원의 40%를 활용하겠다는 것이 위 지사의 구상이다.

민선 8기 도정도 펀드를 통한 지역 투자 정책을 시행했다. 대표적으로 상장기업 육성펀드를 들 수 있다.

운영 구조는 제주도가 정부 기금으로 조성된 모태펀드의 자펀드(모태펀드 자금에서 출자해 결성한 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거쳐 상장기업 육성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면 해당 회사가 투자 대상을 발굴·심사에 실제 투자에 나서는 방식이다. 또 펀드에 자금을 출자한 제주도는 운용사를 선정할 때 출자금액의 최소 2배 이상을 도내 기업 또는 이전 희망기업에 투

자하라고 조건을 달며, 투자 대상도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미래성장펀드 재원 확보처로 지목한 국민성장펀드는 이런 방식으로 지역 투자를 실행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이 특정 기업으로부터 직접 투자 또는 융자 신청을 받거나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투자해달라고 제안하면 사무국 예비심사와 투자심의위원회 본심사, 기금운용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투자여부가 결정된다. 전라남도도 신안군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제안해 국민성장펀드 자금 중 7500억원을 융자받는데 성공했다.

정부 승인 없이는 지자체가 국민

성장펀드를 연계해 자펀드를 결성하거나 지역 산업 인프라 조성 재원으로 삼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민성장펀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마치 지방교부세처럼 지자체에 펀드 재원을 배당하는 구조가 아니”라며 “지금까지 국민성장펀드로 이뤄진 지역 투자는 해당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융자나 지자체가 제안한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를 거쳐 투자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자체의 펀드자금으로 출자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단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지자체(자)펀드에 출자한 사례가 없다는 뜻이지 그런 제안 자체가 막혀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모태펀드와 연계한 자펀드 결성이 됐건,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에 지역 프로젝트를 제안해 승인을 받는 투융자금 유지가 됐건 방식은 다양하며 정부를 설득할

만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수익 실현 모델을 잘 설계하면서 종잣돈 1조원 조성은 가능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는 도 출자금과 도민 투자를 받아 제주 차원의 펀드를 조성한 뒤 해상 풍력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 중 일부는 국민성장펀드 융자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제주도 조성 펀드 자금으로 채워 넣는 프로젝트 모델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 모태펀드 중 하나로 지역 투자 용도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매년 2-3조원의 재원을 조성하고 국민성장펀드도 40%를 지역에 투자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한다면 1조원 조성은 가능하다”며 “앞으로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태스크포스를 꾸려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노고메오름의 여름 7월 제주도 애월읍 노고메오름 주변으로 그림같은 풍광이 펼쳐져 있다.

연합뉴스

‘통합돌봄 100일’ 제주 1만명당 신청자 전국 2위... 3명 / 보이스피싱 신종수법 횡행... 4명

알림

제33회 ‘한라환경대상’ 공모 접수 연장



제주특별자치도와 한라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라환경대상’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이번 한라환경대상은 ‘환경을 생각하는 모든 이’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환경에 대한 UCC 공모전도 함께 진행되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참가자격		
▶기업체, 단체, (공)기관, 학교, 교사, 학생, 개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		
한라환경대상		선정방법
구분	포상내용(명)	상금
일반 및 대학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70만원
학교 교사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70만원
중고등부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한라환경 UCC 공모전		
구분	포상내용(명)	상금
일반 및 대학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60만원
중고등부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40만원
초등부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
* 기 수상자의 경우 수상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경과한 경우 수상 자격 부여 함		
* 단, 참여자가 주로 제주도민인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정할 수 있음		
시상일정 및 장소		
▶2026년 8월 10일(월) / 한라일보사		
접수마감 및 문의처		
▶7월 31일(금)까지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jis1006@hallailbo.co.kr)로 접수		
▶한라일보 비즈니스부 ☎064)750-2291, 2540 / 팩스: 064)750-2520		
* 자세한 내용은 본보 홈페이지 제33회 한라환경대상 배너에서 확인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 한라일보

제주시 동부·북부 폭염주의보

기상청 “당분간 폭염특보 확대... 온열질환 주의”

제주시 동부에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진 가운데 제주시 북부까지 폭염특보가 확대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7일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시 북부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전날인 6일 제주시 동부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이틀째 유지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별 최고기온은 구좌 31.8℃, 송당 30.0℃, 가시리 29.1℃, 애월 28.8℃ 등이며 최고 체감온도는 구좌 33.9℃, 송당 32.2℃, 가시리 32.1℃, 애월 30.8℃ 등이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제주시 동부·북부를 중심으로 따뜻하고 습한 남풍류가 유입되고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고 전망했다. 또 이의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1℃ 이상으로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다고 내다봤다.

앞서 제주에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전날 온열질환자가 나왔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35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 밭에서 일을 하던 60대 여성 A씨가 어지럼증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 증세를 보여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질병관리청 공식 통계 발표 기준 제주 지역 온열질환자는 올해 5월 15일부터 전날까지 총 12명이다.

기상청은 “기온이 높으면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당분간 열대야와 폭염특보가 확대·강화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했다. 박소정기자



주택용 태양광

지붕부착형 · 주차장형 · 기본형 등 시공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가용 태양광

상가 · 펜션 · 카페 · 식당 · 유치원 카센터 · 게스트하우스 · 교회 · 사찰 등



태양광 발전사업

* 태양광 발전사업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에너지코리아 (주)
동문시장 현대약국 앞

☎ 1544 - 4295

삼성전자 제품
히트펌프

에너지효율
378%



시공문의 064)721-3909